

미호뮤지엄, 오가타 겐잔(尾形乾山,1663-1743, 에도, 江戸) 도자기특별전, <http://miho.jp/japanese/>, 16.10.21

겐잔은 교토의 부유한 기모노 집에서 세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은 그림으로 유명한 고린(光琳,1658-1716)이다. 둘은 성격이 대조적이었다. 형 고린이 제멋대로 자유스러운데 비해서 겐잔은 내성적이며 은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노노무라(野々村仁清)에게 도예를 배운 겐잔은 1699년 37살 때 교토시 나루타키에 가마를 차렸다. 그리고 1712년 50살 때 교토 시내 니조(二条丁子屋町)로 이사하여 많은 작품을 만들어 겐잔요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루타키(鳴滝)말기부터 이 니조로 이사하면서 형 고린은 그림으로 겐잔을 도와 형제가 같이 작품을 만들었다. 1731년 69살 무렵 간에이지에 가마를 만들고 말년을 보냈다. 8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도에 왕래하면서 도자기나 그림에 솜씨를 발휘했다. 겐잔의 작품은 도자기 작품뿐만 아니라 글씨나 그림에 있어서도 자유분방한 여유와 기품이 느껴진다. 그림에 있어서도 형 고린과 같이 그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많이 남아있다. 특히 겐잔의 작품 가운데 대단한 무늬의 예술성 넘치는 감각이나 겐잔 특유의 친근함이 느껴지는 작품이 많다.



1 겐잔 물감 염색 국그릇(乾山銹絵染付搔落絵替汁次), 교토, 에도, 18-19 C. H:6.6, D:8, 코발트(呉須) 철회(鉄絵), 井上馨(1836-1915, 정치가 실업가)旧蔵, 작은 크기의 국그릇이다. 상자에 겐잔도자기라고 쓰인 상자에 담아서 보관해 왔다. 메밀국수 국물을 담았다. 뚜껑에서 몸 일부에 걸쳐서 흰 흙이 드러나 있다. 바탕 무늬와 겉에 그림이 드러나 있다. 하나하나 긁어내는 기법으로 그림을 섬세하게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투명 유약을 칠했다. 모두 10개이지만 한 개가 모습이나 태도, 굽는 법이 다르다.

뒤에 다시 만들어서 채워놓은 것처럼 보인다. 8개 몸통 아래 물감으로 겐잔(乾山)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다. 다만 글씨체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아서 여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겐잔 작품 가운데 비교적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겐잔이 초기 작업실은 나루타키(鳴滝: 현, 京都市右京区)에 있었고 뒤에 니조로 옮긴다. H:5.3-6.3, D:10.4-10.6, 입지름:5.7-5.9, 몸통지름:8.0-8.3,



2 겐잔매화물결무늬(乾山銹絵染付梅波文蓋物), 교토, 나루타키, 18C. H:8.6, D:21, W:20.5, 코발트(呉須), 철회(鉄絵), 겉에는 바탕에 매화꽃을 그려놓았다. 겹쳐진 매화를 물감으로 그리고, 투명유약을 칠해서 구웠다.

속에도 겉과 같다. 주둥이 부분은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는 겐잔이라는 글씨가 써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작품 가운데 오사카 고노이케(鴻池家) 집에 전하는 작품에는 겐잔이라는 글씨가 있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작품의 사금파리가 나루타키 가마터 부근에서 나왔다. 겐잔 작품 가운데 비교적 초기 것으로 보인다.



3 겐잔 풀무늬 사각그릇(乾山銹絵染付草文四方鉢), 교토, 나루타키 H:5.2, D:25, W:25.2, 먼저 하쿠테이(白泥)라고 하여 산화철(酸化鉄) 약간 들어간 회백색(灰白色) 진흙으로 백지를 만들어 구운다음 철회와 코발트 안료로 풀무늬를 그리고, 투명 유약을 칠해서 마무리했다. 풀은 춘란처럼 보인다.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듯하다.

바닥은 바탕이 드러나있고 겐잔이라고 쓰여있다. 안쪽에 조금 깨진 곳도 있다. 전체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초기 작품이다.



4 겐잔 소나무무늬 차사발(乾山銹絵染付松図茶碗), 교토, H:7.3, D:9, 몸통 아래는 물레로 돌리면서 주걱으로 깎아서 만들었다. 걸만 붓을 유약을 발랐다. 그림 위에 투명 유약을 칠했다. 회백색 진흙으로 백지를 만들어 하얗게 굽고 다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겐잔 방식의 연질 태도로 만들었다. 비슷한 그릇이 나루타키 때부터 만들어졌다.



5. 겐잔 그림 접시(乾山銹絵替皿), 교토, 18 C. 에도(江戸) H:2.7, D:21, W:12.7 사각 접시이다. 사각형 판을 만들어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올려서 만들었다(タタラ作り). 약간 변형되기도 하지만 겐잔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방법이다. 직사각형 접시 안에 매화, 동백, 수선, 목단 따위가 산수화와 같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계절에 맞는 한시가 쓰여있다. 작가 겐잔이 지닌 한시에 대한 소양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만들었다.

	<p>6. 겐잔 수 자 글씨 접시(乾山色繪壽字輪花向付), 교토, 에도(江戶) H:5.4, D:14, 나루타키 때 겐잔은 예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13년 뒤 1712년 니조로 옮겼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당시 인기를 누리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공동 가마를 빌려서 사용했으며 여러 전문가의 손을 빌리기도 했다. 겐모습은 꽃모양이다. 노랑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는 녹색 띠를 안팎으로 둘렀다. 한 가운데 목숨 수 자를 철사로 기록했다.</p>
<p>바닥 굽에도 겐산이라는 글씨를 썼다. 주둥이 가장자리에도 녹색으로 고래가죽 무늬를 둘렀다. 목숨 수 자로 꾸민 식기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상서로운 뜻으로 주문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p>	
	<p>7. 겐잔 그림 잔(乾山色繪繪替筒向付), 교토, 에도(江戶) H:8, D:7, 이렇게 원통형 깊은 잔을 노조키 또는 노조키무키라고 한다. 속을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안에 무엇이 보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붙여졌다. 그릇 바탕에 매화,</p>
<p>버드나무, 창포 따위가 철사와 코발트 안료로 그려져 있다. 바탕에는 봄 아지랑이가 분위기를 표현하여 그림이 약간 뜨는 효과를 냈다. 반대쪽에는 유려한 붓놀림으로 단가 한시와 겐산의 이름인 이(爾)가 쓰여있다.</p>	
	<p>8. 겐잔 동백무늬 덮개 그릇(乾山色繪椿文向付), 교토, 에도(江戶), H:7.2, D:8.2, B:3.8 전체를 하얗게 만든 다음 투명 유약을 발라서 구웠다. 녹색 안료로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했다. 일부 바탕을 남겨두고 동백꽃 가장자리로 나타내고 황색으로 수술을 그렸다. 덮개 안에는 오각형으로 뚫어서 속이 보이게 했다. 이 작품처럼 녹색 바탕에 흰 동백무늬는 겐잔 작품에서 자주 보인다. 덮개에 겐잔이라고 쓰인 사례는 비교적 드물다. 비교적 후기 새로운 작품이다.</p>
	<p>9. 겐잔 풀무늬 차사발(乾山鏤繪染付春草図茶碗), 교토, 에도(江戶), H:6.9, D:10 겐잔 차사발은 반통형이 많다. 물레를 돌려서 만든 그릇으로 단정하다. 그릇 겉과 속에 봄의 들풀이나 고사리들이 가득 풍성하게 그려져 있다. 들풀과 더불어 봄 기운을 마시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분 좋은 차사발이다. 개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p>
	<p>10. 겐잔 등나무 무늬 그릇(乾山鏤繪染付藤図向付), H:3.2, D:16, W:15.2 공방 생산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겐잔 작품은 일정한 형식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얀 바탕에 코발트 안료로 꽃을 그리고, 철회로 덩굴이나 잎을 그렸다. 같은 그릇이지만 유약이나 글씨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아서 같은 제작 과정 속에서 몇개를 여러 작가가 같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p>
	<p>11. 겐잔 접시꽃그림 그릇(乾山色繪立葵図向付), 교토, 에도(江戶), 18C. H:3.3, D:16 겐잔은 노노무라(野々村仁清)에게 도자기 기법을 배웠다. 인청은 유약 위에 그림을 그리웠다. 초벌구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한층 떠버린다. 종이나 비단 그림에 익숙한 겐잔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유약 바탕에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기법은 종이나 비단에 그리는 그림과 비슷하게 그릴 수 있었다.</p>
<p>이 작품은 지금 하나만 남아있다. 안쪽에 흰 목단 꽃잎 두 장이 그려져 있고, 에머랄드 그린으로 잎사귀를 선명하게 그렸다.</p>	
	<p>12. 겐잔 도라지 무늬 잔 받침(乾山色繪桔梗文盃台) 교토, 에도, 18C. H:6.8, D:15 텐목차사발 받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잘 알 수 없다. 명확한 그릇 성형기법을 띠고 있다. 도라지 잎사귀가 원통형 받침대 위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위에 금색, 흰색, 남색, 녹색으로 화려하고, 아래 몸통 바탕은 남색의 칠보무늬가 있다. 그릇 바닥에 겐잔이라고 쓰여있다.</p>
	<p>13. 겐잔 구름 당초무늬 대접(乾山鏤繪播落雲唐草文大鉢), 교토, 에도 18C. H:13.5, D:32, 온통 하얀 그릇에 철회를 두르고, 깎아서 풀과 그림 무늬를 섬세하게 새겼다. 이런 그림은 중국 자주가마나 고려에서 흔히 사용했다. 안에는 셋을 나누어 우리형 창이나 구름을 나타냈다. 비슷한 조각이 나루타키 가마터에서 나오기도 했다.</p>

	<p>14. 겐잔 그림 토기 접시(乾山鏤繪染付繪替土器皿), 교토, 에도(江戸) 때 18C. H:2.6, D:14, 겐잔은 토기 접시를 많이 만들었다. 교토 라쿠호쿠(洛北)의 하타에다(幡枝)에서 만든 제사용 접시를 참고로 겐잔의 예술성을 붙여넣었다. 금칠 토기 접시가 유명하다. 이 토기 접시는 금채는 아니지만 흰색 바탕에 철회와 코발트로 무늬를 그렸다. 산수화나 물결무늬에 접시꽃, 조개, 푸른풀 따위를 굵어내기 기법으로 나타냈다.</p>
	<p>15. 겐잔 매화 그림 차사발(乾山色繪檜梅図茶碗), 교토, 에도(江戸) 때, 18C.H:7.3,D:10.2,굽 지름:5.3, 철회로 매화 줄기와 가지를 물감으로 꽃 가장자리를 바탕에 그리고 흰바탕으로 흰매화꽃을 그리고 반투명 유약을 칠해서 구웠다. 그림 위에 적, 녹, 황 세 가지 안료를 사용하여 홍매의 꽃잎, 매화 나무 새싹, 흰매화 꽃술이 그려져 있다.</p>
<p>굽 안쪽 깎아내 부분에 겐잔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다. 이 작품이 담아온 상자에 쓰인 글씨(「や梨むめ 京兆紫翠深省」) 가운데 심(深)자가 겐잔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니조에서 작품을 만들던 1731년 무렵으로 보인다.</p>	
	<p>16. 겐잔 철회 향그릇(乾山鏤繪搔落香合), 교토, 에도 때, 18C.H:3.1,D:9 나루타키 때부터 니조 때에 걸쳐서 겐잔은 철회 그림 굵어내기 기법으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에고려(繪高麗)는 바탕을 하얗게 만들어 철회로 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투명 유약을 칠하는 것이다. 중국 자주 가마(磁州窯)나 북쪽에서 자주</p>
<p>사용되었다. 겐잔은 이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었다. 흰 바탕에 철회로 그림을 그리고, 다시 굵어내기 기법으로 그림 윤곽이나 섬세한 부분을 나타냈다. 바닥 굽안에 겐잔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p>	
	<p>17. 겐잔 그림접시(乾山色繪竜田川図向付), 교토, 에도, H:3.4,D:16,W:18.2 몸통은 입체적이고 굽이 달려있다. 흰색 바탕에 붓으로 철회 물결무늬를 그리고, 반투명 유약을 칠해서 구웠다. 단풍잎은 금채를 따라서 빨강, 노랑, 녹색 세 가지로 그렸다. 열 개 모두 굽 안에 겐잔 이름이 쓰여있다. 글씨체는 조금씩</p>
<p>다르다. 그림 붓놀림이나 색깔의 농담 역시 그릇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공방에서 여러 작가가 같이 만든 것이다. 이런 그릇은 니조 때 많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슷한 사금파리가 나루타키나 니조 두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든 때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릇은 무코즈키(向付)라고 하는데 일식 요리에서 개인 접시로 사용된다.</p>	
	<p>18. 겐잔 목단 사각접시,고린 그림(乾山鏤繪牡丹画角皿,尾形光琳画), 교토, 에도 H:3,D:22,W:21.9, 접시 전체를 붓으로 하얗게 칠한 다음 철회로 목단 그림을 그리고 투명 유약을 칠했다. 목단 그림에는 고린이 그렸다는 붉은 낙관이 찍혀져 있다. 형 고린과 겐잔이 공동으로 만든 사각 접시 작품이다. 겐잔의 여러 기록으로 보아 비교적 초기 나루타키 때 만들었다. 다만 고린의 다른 낙관과 비교하여 형제 공동작품은 나루타키 후반 끝 무렵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p>
	<p>19. 겐잔 나리무늬 접시(乾山鏤繪百合形向付) 교토, 에도 H:5.2,D:15.8,바닥지름:5.8, 나리 그대로 모습을 새겨서 만들었다. 겐잔의 스승인 노노무라(野々村仁清)도 비슷한 작품을 남겼다.</p>
<p>자신감과 박력이 넘치는 작품이 가라츠폰이다. 꽃잎이 겹쳐져 층을 나타내 입체감이 드러난다. 철회를 사용한 겐잔의 나리 모양 접시는 존재감과 강력함이 느껴진다. 그릇 겉에는 틀에서 찍어내면서 남긴 형겼자국이 남아있다. 다섯 개 가운데 네 개에 겐잔 글씨가 남아있다. 글씨체가 모두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쓴 것이다. 글씨체에 어긋남이 거의 없고 단정한 것으로 보아 초창기 겐잔 가마터에서 만든 것이다. 나루타키 가마터 부근에서 비슷한 사금파리가 나온 것으로 보아 비교적 초창기 작품으로 보인다. 바닥부분에 태도가 드러나 있어서 반투명 유약이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20. 겐잔 소나무무늬 향합(乾山鏤繪松文香合) 교토, 에도(江戸) 때, H:4.6,D:6</p> <p>물레를 써서 단정한 원형을 만들었다. 둥근 끝을 사용하여 뚜껑 위쪽에 하나, 안쪽에 다섯 선을 돌렸다. 뚜껑에서 몸통 절반은 하얀 바탕에 붓으로 칠했고, 덮개 안쪽 바탕에는 철회로 소나무 네 그루가 그려져 있다. 바탕 그림 위에 투명 유약을 칠했다. 바닥은 바탕 태도가 드러나 있고, 안쪽은 하얀 바탕이다.</p>
	<p>21. 겐잔 네덜란드무늬사각잔(乾山オランダ写市松文猪口), 교토, 에도 때, H:4.5,D:5,W:4.5, 1699년 교토 서북쪽 나루타키에 가마를 만들고 13년이 지난 1712년 겐잔은 라쿠추(洛中) 니조(二条丁字屋町)로 옮긴다. 이른바 겐잔의 니조 시대가 시작된다. 2대 겐잔으로 이노하치(猪八)를 후계자로 삼아 양자를 들였다. 가마를 빌려서 교야키(京焼)</p>
<p>도자기의 생산체제를 시작하고, 아울러 이노하치 공방을 운영하면서 겐잔야키(乾山焼) 도자기라는 이름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수요에 따라서 공방 방식으로 대량생산과 보편화를 위해서 종류를 확대하고 식기류를 다각화했다. 기모노집에서 태어난 겐잔은 스스로 소양을 키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미술 공예품의 디자인이나 기법을 도예에 활용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외국 도자기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의 데루후 도자기에 주목하였다. 작은 작으로 쓰이는 조쿠(猪口)는 흰바탕과 코발트를 사용하여 바둑판 무늬를 교차시켰다. 바닥에는 겐잔과 겐잔의 이름인 이(爾)낙관이 찍혀있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중후하게 만들었다. 주둥이 가장자리에 노란색 선과 델후트 블르(Delfts blauw)라고 하는 청색이 눈에 선명한 작품이다.</p>	
	<p>22. 겐잔 그림 차사발(乾山色繪薄圓蓋茶碗) 교토, 에도 때, 18C. H:9.5,D:14,</p> <p>겐잔의 작품은 매우 다양하다. 철회, 색깔그림, 일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거친 붓질(刷毛目, 하계메), 중국 자주가마(磁州窯), 네덜란드의 델후트 가마 따위를 본뜨기도 했다. 풍 부한 교양과 폭넓은 지식을 지닌 겐잔은 각각의 특징을 흡수하여 기교를 발휘했다. 이 덮개 달린 그릇은 물레에서 매우 얇게 바탕을 만들었다. 겉에 철회로 얇게 그리고 무늬가 없는 곳에 녹유로 칠했다. 두 가지 색이 나타내는 조화와 무늬는</p>
<p>겐잔의 미적 균형감과 우아미를 느낄 수 있다. 덮개와 몸통에 무늬를 새긴 차사발은 다섯 개나 10 개를 한 짝으로 만드는데 하나만 전해지고 있다. 굽 안에 철회로 타원형을 두르고, 하얗게 한 다음 철회로 겐잔이라고 썼다.</p>	
	<p>22. 단풍그림(紅葉図 尾形乾山筆) 교토, 에도(江戸) 때, 18C. H:30.5, D:43.1,</p> <p>오가타 겐잔(尾形乾山, 1663-1743)은 오가타 고린(尾形光琳)의 동생이다. 젊어서는 도공으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말년 화가로도 인기를 누렸다. 이 그림에는 와카의 흘러 쓴 글씨와 그림이 잘 어울리는 멋진 작품이다. 그림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산맥과 흐르는 물이 배치된 구도이다. 이러한 구도법은 형 고린도 자주 사용했다. 달은 전통에 따라서 은색으로 처리하여 희미하게 빛난다.</p>
<p>겐잔이 자주 사용하는 흘러쓴 글씨로 와카를 쓰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형 고린의 그림에 비해 긴장이 풀리는 감각이 돋보인다.</p>	
	<p>23. 겐잔 도라지 그림 잔(乾山色繪桔梗図筒向付), 교토, 에도 때, 18C. H:8.8, D:7, 주둥이 가장자리가 약간 밖으로 굽어있다. 굽어진 주둥이 밖으로 색을 칠해서 입체감을 살렸다. 겐잔의 섬세한 조형미와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p>
<p>처음 물레에서 얇게 만들어 바탕을 하얗게 해서 철회와 물감으로 자주색과 흰색 도라지꽃을 안밖 전체에 그렸다. 바닥 파인 곳 안에 겐잔 글씨가 보인다. 한 때 이 작품이 인기를 누려 다른 사람이 본떠서 만든 것도 있다.</p>	
	<p>24. 겐잔 단책 접시(乾山色繪短冊皿), 교토, 에도(江戸) 때, 18-19C., H:2.4, D:28,W:6.9</p> <p>겐잔이 만든 직사각형 단책 접시는 여러 점 남아있다. 대부분 안에 와카 시를 써놓은 작품이 많은데 이 작품은 시가 쓰여있지 않고, 자주색과 남색 구름무늬가 있다. 바닥에는 겐잔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비슷한 다른 작품들과 더불어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에서 이 작품은 후계자인 이노하치(猪八)가 고쇼닌가마(聖護院窯)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p>

	<p>25. 겐잔 철회 접시(乾山銹繪繪替皿), 교토, 에도(江戸) 때, 18-19C., H:2.5, D:17.2,W:17.5, 단정한 사각 접시로 부드러운 유약을 발라서 구운 철회 그림 열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이나 글씨는 간략히되어있다. 한 도공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림 밖으로는 구름무늬가 둘러졌다. 한시 마지막에는</p>
--	--

겐잔성서(乾山省書), 상고(尙古), 도은(陶隱) 따위 낙관이 붉게 찍혀있다. 오래 사용되어 낙관이나 글씨가 희미해진 곳도 있다. 대량생산되어 일반에 널리 팔려서 사용되었다. 바닥에 쓰인 한시는 다음과 같다. 거듭해서 쓴 것도 있다.
냉담녕정만절지(冷淡寧井晩節遲) 부용(芙蓉), 황표금정취추색(黃瓢金井催秋色) 오동(桐),
향수지실산추풍(香隋芝室散秋風) 난(蘭), 수수반객의(垂垂伴客衣) 버드나무(柳), 우세연연정(雨洗娟娟淨) 대나무(竹)
질만국리건만절(質滿菊離堅晩節) 난(蘭), 번화불점춘광조(繁華不占春光早) 부용(芙蓉),
사시장견조포음(四時長見布浦陰) 송(松), 불축사시(不逐四時) 매(梅)

	<p>26. 겐잔 소나무그림 차사발(乾山銹繪染付松図茶碗), 교토, 에도(江戸) 때, 18-19C., H:5.7, D:12.1,W:5.8, 현재 차사발로 알려졌지만 원래 먹거리 그릇으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원래 텃개가 있었을 것이다. 물레로 얇전하게 만들었다. 겉을 하얗게 만들고, 철회와 코발트로 물가 소나무 그림을 그렸다. 입 가장자리에 고래가죽 무늬가 붉게 물들어 있다.</p>
--	---

그림 위에 투명 유약을 칠해서 구웠다. 아래 바닥에 바탕 태토가 드러나 있고, 철회로 겐잔이라는 글씨가 있다.

	<p>27. 겐잔 매화그림 검정 차사발(乾山黒染梅図茶碗), 교토, 에도(江戸) 때, 18C. H:7.1, D:9.7, 굽지름:4.7, 작은 크기 검은 차사발로 가장 작다. 입이 안쪽으로 약간 말려져 있다. 굽은 거칠게 투박하게 파여있다. 유약은 광택이 있고, 유자 껍질 처럼 약간 투박하다. 몸통에 늙은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다. 검은 유약(黒染, 라쿠)을 발라서 초벌구이 뒤 주걱으로 늙어서 무늬를 새겼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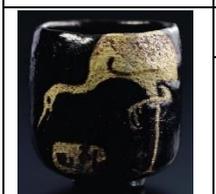
굽 양 옆으로 겐잔이라는 글씨도 세로로 굽어서 새겼다. 두 손바닥에 감싸 안기에 알맞은 크기이다. 굽이 감싸 있고 가운데 볼록 올라온 것을 도킨코다이(兜巾高台) 라고 한다. 굽에는 세 곳에 겹쳐서 구울때 생긴 자국인 메아토(目跡)도 세 곳에 남아있다.

	<p>28. 겐잔 부용그림 차사발(乾山染付芙蓉茶碗), 교토, 에도(江戸) 때, 18C. H:6.9, D:10.1, 굽높이:4.8, 단단한 인상을 주는 야무진 작품이다. 몸통이 약간 위로 갈수록 벌어져 입이 넓다. 전형적인 반통모양이다. 바탕을 하얗게 만들고, 철회로 부용을 그렸다. 굽 아래쪽은 바탕을 드러내고 깎아냈다. 두껍게 칠한 투명유약이 갈라져 있으며 글씨부분에는 주름져 있다. 독개화추(占獨開花秋) 겐잔성(乾山省)</p>
--	---



29. 겐잔 와카 시 도판(乾山色繪和歌陶板) 8 장, 교토, 에도(江戸) 때, 18C. 두께:0.3-0.4, 18-18.5×18.8-19.5

도자기 판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와카 시를 흘림체로 쓴 작품이다. 그림과 글씨가 절묘하게 어울린다.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되어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창작력이 돋보인다. 글씨는 그림 빈곳을 잘 활용하여 그림과 글씨가 한몸처럼 자연스럽고 균형잡혀 있다. 원래 화로 앞 병풍에 끼워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①춘풍에 날려 오르는 벚꽃 다만 향은 아마도 가지에 남아있으리, 春風て 散はてにける さくら花 たた香はかりそ 枝にのこれる ②춘立つといふはかりにや ミよしのの 山もかすみてけさはミゆるむ ③ちきりけむ ころそつらき 七夕のとしにひとたひ あふはあふかは ④立田川紅葉葉なる 神나미의 御室の山に 時雨ふるらし ⑤住吉 松を 秋風 吹くからに 声うちそふる 奥津しら浪 ⑥ほのほのと 有明の 月かけに 紅葉吹おろす 山おろしの風 ⑦ちきりきな かたみに袖をしほりつつ 末の松山 波こさしとは ⑧伊勢の海 ちひろのはまた ひろふとも 今は何てふ かひかあるへき

	<p>30. 겐잔 삼나무그림 접시(乾山色繪雪杉図向付), 18C. H:3.5, D:15.2, W:18.2, 고화도소성, 눈 덮인 그림은 소나무뿐만 아니라 삼나무도 있다. 이 작품은 두 그루가 겹쳐진 삼나무이다. 나무 모습 그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틀로 찍어서 모습을 만들고, 바탕에 철회로 소나무 줄기를 그렸다. 전체에 투명 유약을 칠해서 구운 다음 삼나무 잎 푸른 부분을 덧칠했다. 뿌리부근에는 금채를 입혔다.</p>
<p>뒷쪽에는 7 개 정도 다리가 달렸다. 다리 바닥은 태도가 드러나 있어 깎은 흔적이 있다. 가운데 바탕에 철회로 겐잔이라는 글씨를 써놓았다. 투명 유약 전체에 금이 가있다. 바닥에는 회청색을 띠는 회유계 투명 유약이 잠자리눈 모양으로 문쳐져 있다. 원래 여러개를 짝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다. 만든 방법이나 글씨체 따위로 보아서 전형적인 니조 때 작품.</p>	
	<p>31. 겐잔 소나무그림 차사발(乾山色繪松図茶碗), H:6.3, D:9.0, 굽지름:5.8, 반통형 작은 차사발이다. 하얀바탕에 우선 철회와 물감으로 소나무를 그리고, 그 위에 청, 녹색, 빨강 색으로 소나무를 그렸다. 바탕 태도가 보이는 굽은 단정히 깎여있다. 작가인 겐잔은 황벽종(黃檗宗 直指菴獨照性圓) 절에서 참선을 하기도 했다. 에도 때 나가사키에서부터 황벽종 선 바람이 차유행을 불어오기도 했다. 차사발 모습으로</p>
<p>보아 차보다는 시를 즐기는 문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센차용(煎茶用, 차잎을 덫어서 말려서 사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온도에서 구웠다(高火度燒成). 고화도 소성은 섭씨 1100 도 이상 幾經霜雪 操</p>	
	<p>32. 겐잔 소나무그림 차사발(乾山松図黒茶碗), 18C, H:8.0, D:11.0, 굽지름:4.5, 가장자리가 약간 안으로 감겼다. 굽은 안으로 깎아서 닦고, 가운데가 약간 뽀족하다. 받침 흔적이 세 곳에 나있다. 넘치는 유약 흔적과 덩어리가 남았다. 바탕에 칠한 흰색 유약이 소나무 세 그루로 나타나 있다. 반대쪽에는 한산시(寒山詩)를 인용해서 써놓았다.</p>
<p>굽 가까이 겐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부근에는 은가루가 뿌려져 있다. 매우 모습이 단정하고, 공들여 만든 차사발이다. 소나무 아래에는 붉은 옷칠로 낙관이 새겨져 있다. 낙관은 분숙(武者小路千 家二代文叔, 1658-1708)의 것으로 무언가 축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낙관의 글씨체로 보아서 비슷한 낙관이 보주 차사마술(官休庵, 寶珠釜)에도 보인다. 낙관이나 기타 이 차사발과 관련된 내용이 차사발을 담아서 보관한 상자에 써있다. 겐잔은 분숙과 친척관계이며 사이가 좋았다. 겐잔 글씨로 보아 이 차사발은 나루타키 가마 터(1699-)에서 만들었다. 낮은 저화도소성(低火度燒成)은 섭씨 1100 도 이하이다. 微風 吹 幽松</p>	
	<p>33. 겐잔 소나무그림 차사발(乾山松図黒茶碗), 18C, H:9.0, D:11.0, 몸통지름(D):12.5, 굽지름:5.0, 이 차사발은 허리가 약간 볼록 튀어나온 등근 모습이다. 입은 자라머리 처럼 약간 퍼졌다고 해서 자라입이라고 한다. 굽은 가운데가 볼록하고 세곳에 받침자국이 있다. 유약은 유자 껍질과 비슷하다. 한쪽에 큰소나무가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시가 쓰여있고, 아래에 겐자 글씨가 쓰여있다. 굽어서 썼다. 겐잔이 검은 차사발은 그가 쓴 책과 비교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p>
<p>겐잔이 구운 가마터에서도 비슷한 검은 사금과리가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美松 淺 春色</p>	
	<p>34. 겐잔 학그림 차사발(乾山鶴図黒茶碗), 18C, H:9.4 D:10.3, 굽지름:5.0, 앞이 좁고 가장자리가 조금 넓어져 몸통이 단을 이루고 약간 깊은 흑차살이다. 굽은 볼록하게 깎았고 받침대 흔적이 세 곳에 남아있다. 광택이 있는 유약을 사용했으며 문친 곳은 없다. 학이 서있는 무너로 부드럽게 파여 있다. 반대쪽에는 린파의 물결무늬가 굽어서 새겨져 있다.</p>
	<p>35. 겐잔 학 거북이 그림 차사발(乾山鶴図黒茶碗), 18C, H:10.3 D:8.8, 굽지름:4.2, 모습은 위 34 와 비슷하다. 학이 한쪽 다리를 몸쪽으로 올라가 있다. 학무늬는 길을따고 굽어서 새겼다. 학 아래에 겐자 글씨가 학무늬와 비슷한 식으로 새겨져 있다. 반대쪽에는 거북이무늬가 굽어서 새겨져 있다. 차를 마시면서 거북이무늬가 보이게 했다. 작가의 섬세하고 독특한 취향이다.</p>

	<p>36. 겐잔 학 거북이 그림 차사발(乾山鶴兕黒茶碗), 18C, H:4.5, D:14.8, 굽지름:7.4,10 개, 암전하게 물레로 형태를 만든 납작한 대접모양이다. 하얀 바탕에 한국화를 그리고, 철회와 물감으로 일과 줄기를 안팎으로 그렸다.</p>
<p>바깥에는 직사각형으로 흰색 바탕에 철회로 겐잔 이름을 쓰고 테두리를 둘러 놓았다. 굽은 깎아서 만들어 놓아 바탕이 엷보인다. 투명유약을 발라서 구웠다. 단단하게 구운 느낌을 준다. 유약을 칠한 곳에는 고려 차사발에서 보이는 붉은색 얼굴무늬 줄(御本手)이 나타나있다. 직사각형 겐자 글씨는 니조 가마터에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쇼고닌(聖護院) 가마터에서 비슷한 사금파리가 발견되기도 했다.</p>	
	<p>37. 겐잔 철회 직사각형 접시(乾山鏤繪繪替長平皿) 18C, H:2.7,W:20.5,D:12.7</p> <p>나루타키 가마 이후 시나 그림을 축으로 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산수화가 그려진 작품이나 겐잔의 형인 고린이 그린 작품을 대표로 하는 연질 유약 계통 철회 사각 접시는 겐잔도자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주력 작품이다. 니조 가마 이후에도 그것을 계승하면서 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방에서</p>
<p>대량생산에 대응한다. 직사각형 접시는 10 개 혹은 24 개을 한 벌로 만들었다. 인용한 시에 맞추어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에 겐산성서(乾山省書)라고 쓰고 상고(尙古), 도은(陶隱) 낙인이 빨강으로 찍혀있다. 안쪽 가로옆에는 테두리를 두르고 꽃무늬를 그렸다. 세로에는 그림 당초무늬가 있다. 밖에는 상서로운 구름무늬가 있다. 저화도소성(低火度燒成, 600~800℃) 접시에 쓰인 글씨, 不逐四時凋梅, 輕盈凝曉露芙蓉, 眉葉翻風舞柳, 冷葉輕裁玉梅, 誰思靜裏乾坤大我愛閑中日月長 山水, 翠袖黃冠白玉英水仙, 國色千般媚牡丹, 紅刺青莖巧樣粧薔薇, 疊疊仰風千苞猶帶雪山茶花</p>	
	<p>38. 겐잔 철회 직사각형 접시(乾山鏤繪繪替向付) 18C, H:4.2,W:14.6,D:11.2 저화도소성</p> <p>간략화하게 만든 사각접시로 그림과 한시가 그려져 있다. 바깥에는 꽃무늬, 안쪽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옆에 그린 그림이 능숙하여 각기 다른 사람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공방에서 많이 만들어졌다.對花陶 靖節, 輕盈凝曉露芙蓉, 溫露傲深秋菊, 花開獨占秋芙蓉 清芬眉晚風水仙</p>
	<p>39. 겐잔 철회 직사각형 접시(乾山鏤繪繪替四方入角角皿) 18C, H:2.0,W:9-,D:8.8-</p> <p>사각형으로 모서리가 안으로 멀려져 있는 접시이다. 테시오사라(手塩皿)라고 하여 부정을 씻는 뜻을 소금을 담아서 문간에 놓는데 쓴다. 하얀 바탕에 한시와 그림을 그렸다. 겐잔이 자주 쓰는 기법이다. 바닥에는 겐잔성서(乾山省書)라는 글씨가 있고 아래 바닥에 낙관이 찍혀있다.</p>
<p>바깥 벽에 녹색 칠보무늬(唐花<七宝>輪違文)가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이 담긴 상자에 쓰인 기록에 의하면 겐잔이 말년 도쿄(東京都台東区)에 살면서 만들었다. 저화도, 妖嬈凝雪色牡丹, 誰識山中別有春梅, 素女洗紅粧菊, 靜裡乾坤大山水, 木兆前梅後獨迎春水仙, 花開獨占秋芙蓉, 輕軟任風稜柳, 霞艷迎秋日芙蓉, 風吹細細香竹, 爛漫倚秋風芙蓉</p>	
	<p>40. 겐잔 얼룩무늬 잔(乾山色繪麦藁手猪口) 18C, H:6.7,D:4.5, 바닥지름:3.9</p> <p>겐잔이 자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나루타키 유물로 알려졌다. 겐잔은 아리타(有田,肥前,비젠) 자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벌구이를 구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자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바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교하게 물레로 만들어 녹색과 황색 띠를 그려서 구웠다. 안에는 녹색이 모두 칠해져 있다. 바닥에는 겐잔이라고 붉은</p>
<p>글씨로 쓰여있다. 비슷한 작품이보이지만 크기가 다르다. 세로 줄무늬를 무기와라테(麦藁手)라고 하고, 술이나 액체를 마시는 작은 잔을 조쿠, 조코(猪口)라고 한다</p>	
	<p>41. 겐잔 철회 부채형 접시(乾山鏤繪染付繪替扇形向付) 18C, H:3.2-,D:15.3,W:19.3, 철회 물감 그림 부채형 접시, 담긴 상자 기록에 의하면 원래 10 개가 한 짝이었으나 지금은 다섯개 남아있다. 다타라즈쿠리(たたら造り)라고 해서 미리 진흙으로 판형을 만들어 각 부분을 중심으로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 안 바닥에는 중심 그림을 그리고 가장자리 밖에는</p>
<p>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띠 형태의 바람 연속무늬, 안에는 마름형 마름무늬가 그려져 있다. 바닥에는 바탕에 철회로 겐잔이라고 쓰여있다. 글씨체로 보아 나루타키 가마터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매화, 빛꽃, 도라지, 수국, 동백(혹은 산단화) 따위이다</p>	

	<p>42. 겐잔 철회 산수그림 접시(銹繪樓閣山水図角皿, <small>さびえろうかくさんすいずかくざら</small>), 18C, H:2.7,D:21.8,W:21.9,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산속. 말 없이 소나무는 자라고, 한적하고 고요한 산속에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철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사각 접시이다. 비록 확실하지 않지만 상고(尙古)와 도은(陶隱) 낙관이 찍혀있다. 가장자리 안쪽에는 테를 두르고 가위무늬(다스키,板襷蔓文), 바깥쪽에는 테를 두르고 가운데 꽃무늬, 밖으로 바둑관무늬가 그려져 있다. 시는 중국 원기활법(圓機活法)에서 인용한 한시가 쓰여있다. 靑山影裡塔 重重一徑斜穿 十里松</p>
	<p>43. 겐잔 철회 매화그림 접시(銹繪梅図角皿, <small>さびえうめずかくざら</small>), 18C, H:2.7,D:22.1,W:22.1, 하얗게 핀 꽃이 바탕에 큼직하게 고목에 달려있다. 왼쪽 위에 한시가 쓰여있다. 비록 확실하지 않지만 상고(尙古)와 도은(陶隱) 낙관이 찍혀있다. 가장자리 안쪽에는 간략화된 상서로운 구름 무늬가 있고, 밖에는 꽃 무늬가 그려져 있다. 옥예경지(玉莖瓊枝) 銹繪山水図角皿-江籬漠漠苳田田 江上雲亭霽景 鮮/, ·銹繪桃図角皿-爛漫仙源 景/ ·勁直忠臣節 竹/,·三秋雨 後鮮 葡萄,·雨洗娟娟淨 竹/,·屢結騷 人佩 蘭, ·連春接 夏正薰 芳 薔薇/,·妖媒凝雪 色 牡丹,·利祿豈 千身閑居 林野人 山水</p>
<p>./·風吹細 香香 風竹/,·肯共松篁傲 歲華 山茶花/,·春風北堂 上眞樂自 甘草/</p>	
	<p>44. 겐잔산다화그림부채모양 그릇(銹繪山茶花図扇面手鉢, <small>さびえさざんかざせんめんてぼち</small>) 18C., H:2.8,D:14.7,W:28.7, 불러서 앉힌다는 말에서 파생된 센스(扇)부채는 오래전부터 신의 매개물로서 유행했다. 여름에 유행하기 쉬운 전염병이나 농산물의 피해를 가져오는 병충해를 쫓아서 없애고, 그 신적인 힘으로 무병장수,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복을 불러오고, 끝으로 퍼진 모습으로 상서로움의 상징이었다. 그 길상의 형태는 겐잔 작품으로도 나타났다.</p>
<p>부채꼴 철회 접시는 몇 곳에 나누어서 전해지고 있다. 원래 여러 개가 짝으로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얀 바탕에 산다화와 한시를 그리고, 붉은 색으로 상고, 도은 낙관을 찍었다. 구리 손잡이는 나중에 붙여졌다. 葉硬經霜 綠</p>	
	<p>45 겐잔 목단당초무늬향합(銹繪搔落牡丹唐草文香合, <small>さびえかきおとしぼたんからくさもんこうごう</small>) 18C.,H:3.1,D:9,바닥지름:5.0, 얇고 단정하게 물레에서 만든 다음 바깥만 하얗게 하고 철회로 목단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투명유약을 발라서 구운 향합이다. 이른바 에고려(繪高麗)라고 불린다. 자주요(磁州窯) 등 중국 북방 가마에 흔히 보이는 철회</p>
<p>굽어내어 그리는 기법이다. 겐잔의 작품 가운데 중국 것을 본떠서 만들었다. 바닥에는 철회로 겐잔이라고 써있다. 그림이나 굽는 법이 다르지만 이것과 비슷한 작품이 프랑스 기메 동양미술관에도 있다. (16)</p>	
	<p>46. 겐잔 철회소나무무늬향합(銹繪松文香合, <small>さびえまつもんこうごう</small>), 18C.,H:4.6,D:6.3,(-20) 바닥지름:4.6,겐잔의 향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2 개월 화조도 따위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이나. 한반도 그림을 본뜬 것과 더불어 이 작품처럼 붕긋한 산그림의 작은 크기 향합이 있다. 덮개 가득 소나무 네 그루가 호쾌하게 그려져 있다. 덮개 겉에 하나, 아래에 다섯 줄 주걱 자국이 단단하게 나있다. 부분적으로 녹색 유약이 보이지만 바탕 흙이 보이는 바닥에는 굽게 철회로 겐잔이라고 써있다. 오사카 유기(湯木)미술관에도 비슷한 작품(檜梅文香盒-아래)하다.</p>
	<p>47. 겐잔銹繪染付搔落芙蓉図茶碗(さびえそめつけかきおとしふようずちやわん), 18C.,H:5.8,D:11.5,W:5.3, 바탕은 가는 돌이 섞여 있는 붉은 흙이다. 약간 몸통이 부풀어있고, 주둥이는 약간 안으로 감겨있다. 사발모습으로 물레로 얇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하얀 바탕에 철회와 물감으로 꽃봉오리와 꽃이 핀 부용을 그렸다. 일맥은 굽어서 그렸다. 굽 안에는 철회로 겐잔의 이(爾) 낙관이 찍혀있다.</p>
<p>굽은 바탕 흙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투명유약을 전체에 칠했다. 그릇 형태로 보아서 원래 식기 사발이었다. 비슷한 작품 가운데 덮개가 있는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다섯 개나 10 개가 한 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점만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차사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膜 艷獨 嬌 春</p>	



48. 乾山鏽絵染付絵替向付, けんざんさびえそめつけがわりむこうづけ, 18C.

H:4.4,D:14.8,W:9.7, 원형으로 납작한 접시이다. 다섯 개가 한 짝이다. 산화철을 조금 지닌 회백색 진흙으로 만든 초벌구이 바탕(白泥)에 철회, 물감을 이용하여 소나무, 등나무, 국화, 박을 그린 작품이다. 입 가장자리에 철회를 용하여 짙게 칠해서 투명유약을 발라서 고화도로 구웠다. 바탕 흙이 보이는

곳에 철회로 크게 겐잔 글씨가 쓰여있다. 바탕 흙은 담회색으로 약간 거친 백토계통이다. 물레로 만들어서 약간 굽은 것도 있다. 소나무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작품에도 보인다. 이러한 접시는 니조 가마터나 나루타키 가마터 두곳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49. 그림접시(鏽絵染付搔落桔梗図向付, さびえそめつけかきおとしききょうざむこうづけ)

18C.H:5.6,입지름:9.7,몸통지름:10.5,바닥지름:4.9, 하얀바탕 바닥에 철회로 도라지꽃을 철회로 그리고, 굽어내서 선을 그렸다. 안팎 벽 위로는 하얀바탕에 철회와 물감으로 마름모형 선을 두르고 안에 다시 격자무늬를 그렸다. 물레로 만들고 입 둘레는 꽃무늬로 잘랐다. 투명유약을 썼다



50. 그림접시(鏽絵染付絵替土器皿, さびえそめつけがわりどぎざら)

18C.H:1.4-1.8,D:10-10.5, 10 개가 한 짝인 작은 접시이다. 바닥에 보이는 바탕흙이 진한 회갈색이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겐잔 글씨가 보인다. 하얀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철회로 썼다. 접시꽃, 목단, 나리, 난, 국화 따위이다.,

교토 이와쿠라 하타에다(幡枝)에서 오래전부터 토기 접시를 만들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꾸미었다. 토기접시는 나루타키 가마 때부터 만들었다. 2 대 겐잔이 만든 것이다. 비슷한 사금파리는 쇼고인(聖護院, 현 교토대학병원 터)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51. 겐잔 철회 구름 국화무늬 주전자(色絵雲菊文手付汁次, いろえくもきくもんでつけしるつぎ), 18C.

H:10.4,D:10-10.7, 몸통지름:8.6,바닥지름:4.4, 크기: 2 승(0.36) 겐잔 작품 가운데 손잡이 달린 주전자는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전자는 고도의 성형기술과 가마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그릇을 만들면서 보다 새롭고 탁월한 것도 만들 수 있다. 주머리 형 몸통이나 뚜껑 모두 물레로 만들었다. 하얀 바탕의 초벌구이 위에 마름무늬, 국화와 당초무늬를 그리고, 따르는 곳에는 구름무늬, 입 가장자리에는 빗금 줄무늬, 손잡이에는구름무늬 따위를 그렸다. 그림 위에 투명유약을 발라서 구웠다.

매우 고운 흙을 사용했다. 바닥에 철회로 겐잔을 썼다. 나루타키 가마터에서 비슷한 사금파리가 발견되었다. 도쿄 묘법사(妙法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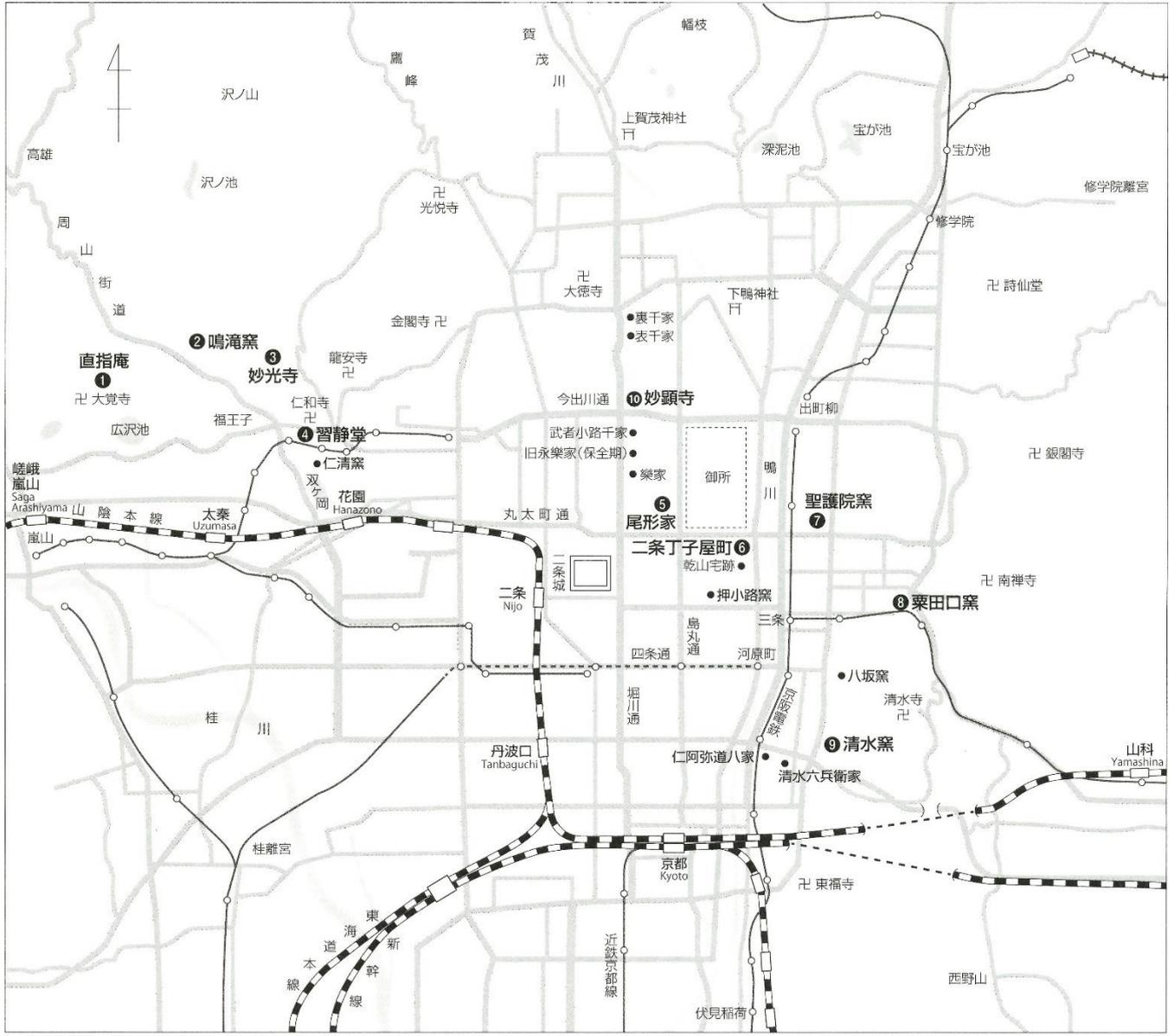


52. 겐잔 소상팔경 와카(瀟湘八景和歌, しょうしょうはっけいわか) 18C., H:39.4, W:18

겐잔은 한문 서적이거나 와카 따위를 비롯한 고전에 조예와 소양이 깊었다. 소상팔경도는 동정호 남쪽 영릉(零陵) 부근의 경치를 여덟 폭으로 그린 산수화이다. 중국 후난성(湖南省)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여 동정호(洞庭湖)로 흘러간다.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북송(北宋)의 이성(李成, 919~967?)에 의해 처음으로 [소상팔경도]가 그려졌고, 송적(宋迪, 1008-1084 벼슬)도 이른 시기에 '소상팔경'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일찍부터 전해져 크게 유행하였다. 고려시대 명종 연간(1171~1197 년)에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①산시청람(山市晴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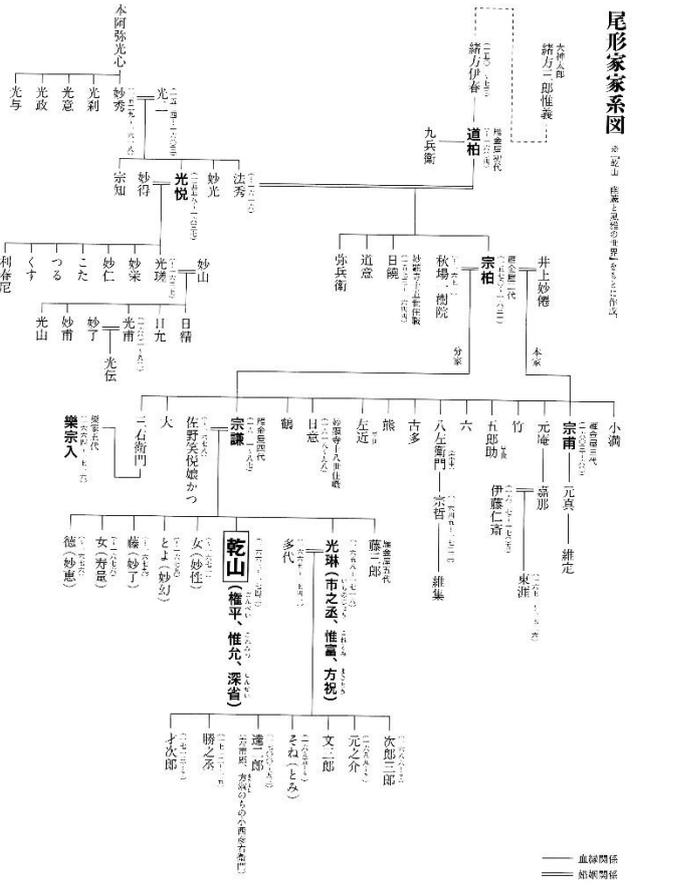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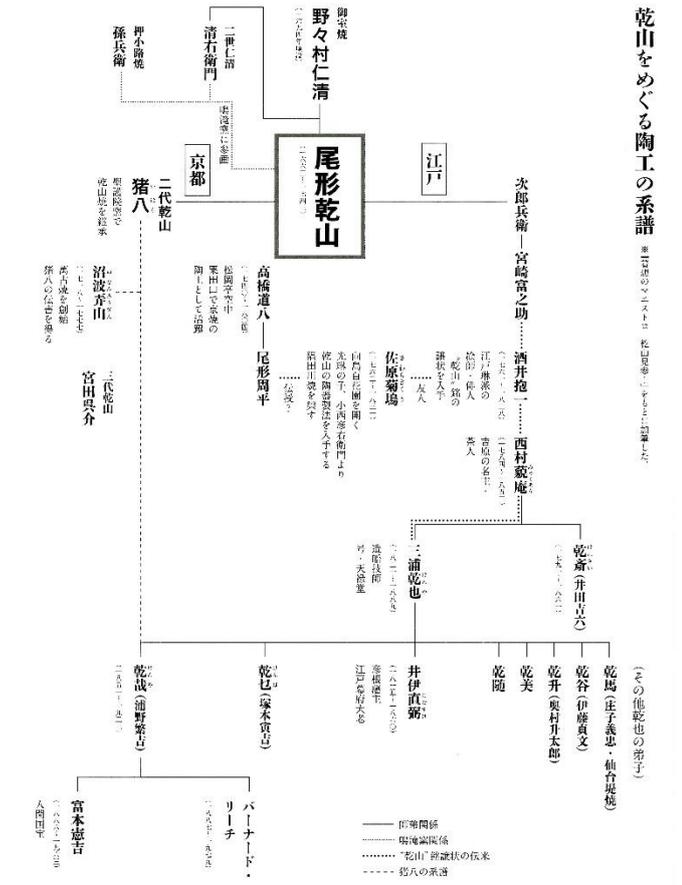
②연사모중(煙寺暮鐘) 또는 원사만중(遠寺晚鐘), ③원포귀범(遠浦歸帆), ④어촌석조(漁村夕照 또는 漁村落照),⑤소상야우(瀟湘夜雨), ⑥동정추월(洞庭秋月), ⑦평사낙안(平沙落雁), ⑧강천모설(江天暮雪) 등으로 구성되었다. 겐잔은 소상팔경도를 중심으로 사네타카(条西実隆)가 가집 설옥집(雪玉集)에 쓴 와카를 써놓았다. 겐잔의 만년 글씨로 그의 작품성을 볼 수 있다. 순서는 ①산시청람(山市晴嵐) 아지랑이에 뒤덮인 산 모습 1 ②어촌석조(漁村夕照-어촌에 석양이 비추고 3 ③연사모중(煙寺暮鐘)안개에 타오르는 절속의 늦은 종소리 6 ④소상야우(瀟湘夜雨)-소상의 밤비 5, ⑤원포귀범(遠浦歸帆)-멀리 물가를 오가는 범선 2, ⑥동정추월(洞庭秋月)-동정호의 가을 달 4 ⑦평사낙안(平沙落雁)-모래사장에 춤추며내리는 기러기 7, ⑧강천모설(江天暮雪)-물 위에 내리는 해질녘 눈

교토 시내 겐잔 관련 지도



- ① 지키시암(直指庵) - 겐잔이 참선한 오바쿠슈(黄檗宗) 절
- ② 나루타키(鳴滝) - 겐잔이 처음 가마를 만든 곳(현 호조젠지,法藏禪寺)
- ③ 묘코지(妙光寺) -노노무라 닌세이(野々村 仁清) 묘소, 다와라야 소타츠(俵屋 宗達)의 풍신뇌신도(風神雷神圖, 후진라인진즈) 병풍 그림이 있었던 절
- ④ 습정당(習靜堂) - 겐잔이 27 살 때 쌍쌍당(雙雙堂)에 준비한 별장
- ⑤ 오가타 집(尾形家) - 고린(光琳), 겐잔(乾山)이 태어난 곳, 가리가네야(雁金屋) 기모노 집이 있었던 곳
- ⑥ 니조(二条丁子屋町) - 겐잔이 50-60 세 무렵 까지 도자기를 팔던 곳
- ⑦ 쇼고인 가마(聖護院窯) - 겐잔의 양자 이노하치(猪八)의 가마가 있었던 곳
- ⑧ 아와타구치 가마(粟田口窯) - 니조(二条丁子屋町) 때 가마를 빌렸던 곳
- ⑨ 기요미즈가마(清水窯) -니조(二条丁子屋町) 때 가마를 빌렸던 곳
- ⑩ 묘겐지센묘인(妙顯寺泉妙院) - 오가타 집안의 보다이테라(菩提寺), 사카이 호이(酒井抱一)가 재건하여 고린(光琳)의 묘비가 있음

오가타 집안 가계도 / 乾山을 둘러싼 도공의 계보



미호뮤지엄, <http://miho.jp/japanese>, 2016.10.22.

아름다운 쟂잔 사계 채채(美し 乾山 四季彩菜), MIHO MUSEUM, 2016.10.11